해남 , 단순 무역 넘어 '고부가가치 중추'로 비상

해남자유무역항이 전면 봉관을 시행한 후 올해 첫 분기가 지났다 . 그동안 개방 잠재력이 방출되고 주도산업이 빠르게 모습을 갖춰간 한편 투자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해남의 발전 동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.

봉관 시행과 함께 지난해말 삼아－체스끄 쁘라하 직항 로선이 개통됐다 . 까자흐스딴 항공사 스캇 (SCAT) 항공이 운항중인 해당 구간은 우리 나라 최초의 제 7 자유 (상대국과 제 3 국 사이 운항 권리) 항공 로선으로 5 월 2 일부터 주 2 회로 증편됐다 .

봉관 이후 해남의 인적 · 물적 이동이 한층 더 원활해졌다는 분석이다 .

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 1 분기 해남의 입경관광객은 50 만명 (연인원) 에 육박했다 . 지난해 동기 대비 50%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. 출도 (出岛) 면세 쇼핑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.7% 증가한 142 억 1,000 만원에 달했다 . 화물무역 증가률은 38.5%, 그중 수출은 무려 83.1% 증가하며 강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. 신규 등록 대외무역기업은 4,119 개로 집계됐다 .

오래동안 해남은 단순한 산업구조에 머물렀지만 봉관후 자유무역항의 핵심 정책이 확대되고 '원자재 · 부품 조달 및 판매는 해외에서 , 가공 · 제조 · 연구개발 (R&D) 은 해남에서' 수행하는 모델이 활기를 띠면서 관광업 , 현대써비스업 , 첨단기술산업 , 열대특색농업이 해남의 4 대 주도산업으로 부상했다 .

2025 년 12 월 22 일 , 체스끄 쁘라하—해남성 삼아 직항편이 삼아봉황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는 관광객들 . / 신화넷

지난해 9 월 첫삽을 뜬 100 억원 규모의 담주 (儋州) 과권 (锅圈) 국제식품산업단지 프로젝트는 년내 1 기 가동을 목표로 한창 건설중이지만 현장에는 상하류 기업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.

장수평 (张秀萍) 사장은 "급한 건 우리가 아니라 시장"이라면서 자유무역항의 지리적 우위와 가공후 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면세 정책 등에 힘입어 야자 , 소고기 , 양고기 등 정밀가공 제품이 저비용으로 내지에 직접 공급될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.

해구종합보세구에선 글로벌 순환경제 · 써비스 무역의 고급 업종으로 보세 유지보수 · 재제조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.

"해남이 유지보수 범위를 확대하면서 기회를 선점할 수 있었다 ." 사룡씨 (司龙氏 · 해남) 과학기술회사 묘화과 (苗华戈) 사장은 '글로벌 주문접수—해남 유지보수—재수출'의 순환 체계를 구축해 해남 관련 산업의 공백을 메웠다면서 "올해 생산액은 2,000 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." 고 전했다 .

해남은 이제 '무역 수지 차익'에서 '써비스 고부가가치 창출'로의 전환 단계에 있다는 분석이다 . 올 1 분기 해남성의 규모이상 공업 부가가치는 지난해 동기 대비 9.2% 증가했다 . 그중 컴퓨터 , 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 등 첨단기술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156.7% 증가하며 공업경제성장률을 3.6% 포인트 끌어올렸다 .

해남은 이제 새로운 형태의 신질생산력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.

애주만 (崖州湾) 국가실험실은 독자적인 과학 발견 시스템 '봉등 (丰登) · 유전자 과학자' 인공지능 (AI) 에이전트를 발표하고 전국 첫 상업우주발사장에선 14 차례 련속 발사에 성공했다 . 지난해 디지털 경제 핵심산업의 매출은 2,400 억원을 돌파하고 청정에너지 발전설비용량 비중은 87% 를 넘어섰다 . 생물제조 , 수소에너지 , 뇌－컴퓨터 인터페이스 (BCI), 체화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역시 선제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.

오스트랄리아자본투자유회사 중화권 최고경영자 (CEO) 하일주 (何逸舟) 는 "장기 자본을 끌어당기는 해남자유무역항의 매력은 정책 호재와 지역적 우위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최상위 설계 및 제도적 혁신이 결합된 력동성에 있다 ."고 짚었다 . / 신화넷

산동 , 금융 혁신으로 기업 자금난 해소

실물경제 · 산업 고도화 지원 확대

산동성이 금융 지원 혁신을 바탕으로 첨단제조기업의 기술 개발과 산업 고도화를 적극 뒤받침하고 있다 .

산동천예 (天睿) 신소재과학기술회사 생산작업장에서는 자동화 생산라인이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작업일군들이 제어 시스템을 능숙하게 조작하고 있다 .

천예신소재가 연구개발 · 판매하는 현대화 유리섬유 및 관련 제품은 건축 , 방화 소재 , 복합소재 보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, 국내 각지와 20 여개 국가 (지역) 로 공급되고 있다 .

하흔 (夏欣) 회장은 "이 장비는 최근 새로 도입한 첨단설비로 업계에서도 선도적인 수준"이라며 "해당 장비가 들어오면서 생산라인 효률이 크게 높아졌다 ."고 말했다 .

이어 그는 설비 교체로 생산능력은 높아졌지만 자금 부담도 함께 커지면서 한때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말했다 . 이에 중국우정저축은행하택 (菏泽) 시지점은 기업 상황을 파악한 뒤 특허 보유와 우수한 연구개발 력량을 고려해 특허 담보대출 상품을 제안했다 . 이어 온라인 심사 시스템을 활용해 700 만원 이상의 대출을 발행하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.

이처럼 산동지역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높은 연구개발 투자와 빠른 자금 회전 등 자금 조달 과정의 어려움에 대응해 금융 상품과 써비스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있다 . 실물경제 곳곳에 정밀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면서 기업의 혁신 발전을 뒤받침하고 있다는 평가다 .

한편 산동성은 금융 '5 대 중점과제'를 추진하며 6 개 분야 , 21 개 세부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. 이를 통해 지난 3 월말 기준 관련 분야 대출 잔액 (중복 항목 제외) 은 전년 동기 대비 16.0% 증가한 총 7 조 4,000 억원에 달했다 . 그중 과학기술과 디지털 경제 분야 대출 잔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16.3%, 31.4% 늘었다 . / 신화넷

광서 북해 해양목장 풍년… 금병어 , '바다 향한 경제' 새 명함으로

최근 광서쫭족자치구 북해 (北海) 시 해성 (海城) 구 관령 (冠岭) 해양목장에서 2026 년 첫 금병어 어획이 시작됐다 .

관령해양목장은 북부만 (北部湾) 에 린접해있어 자연조건이 우수하다 . 이 지역의 년평균 기온은 22.6℃로 겨울이 짧고 여름이 길며 무상기 350 일 이상 , 년간 일조시간은 약 1,900 시간에 달한다 . 비옥한 수질 , 풍부한 해살과 플랑크톤 (浮游生物) 은 금병어에 적합한 천연 먹이를 제공한다 . 이곳에서 생산된 금병어는 육질이 단단하고 맛이 뛰여난 것이 특징이다 .

북해 해련도 (海联岛) 수산물유한회사 총책임자는 "올해 총생산량은 250 만 ~350 만키로그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."며 "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평균 도매가격은 1 키로그람당 약 28~32 원으로 총생산액이 7,000 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."고 밝혔다 . 현재 이 회사는 86 개 심해 방파망 가두리 (网箱) 양식장을 보유 , 단일 가두리 생산량이 약 3 만 5,000 키로그람에 달한다 . 주요 제품은 국내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, 중동 , 북미 등지로 수출된다 .

과학기술과 혁신적인 방식이 기업의 효률성과 품질 향상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. 이 회사는 표준화된 심해 가두리 양식 방식을 도입해 스마트 장비로 수온 , 용존산소량 (溶氧量), pH 값 등 수질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양식 밀도를 과학적으로 조절하고 사료를 정밀 공급함으로써 양식 과정의 정밀화와 친환경을 실현했다 .

이처럼 금병어가 지역 경제를 견인하면서 현지는 '바다에 의지해 살아가던' 데로부터 '바다를 따라 번영하는' 방향으로의 전환을 실현하였다 .

/ 인민넷

남경 , 학교—지방 협력으로 취업 지원

5 월 10 일 , 남경대학 선림캠퍼스에서 진행된 채용설명회에서 학생들이 채용단위 관계자와 상담하고 있다 .

5 월 10 일 , '2026 련운항 대학교 인재 영입 시즌' 행사가 남경대학 선림캠퍼스에서 개최되였다 . 련운항시 56 개 기업 , 단위 및 과학연구원 (소) 이 행사에 참여한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 상담했다 .

/ 신화넷

신강 알라산구통상구

중국—유럽 화물렬차 운행 3,000 편 돌파

지난 2 월 15 일 , 신에너지차와 부품을 싣고 귀주성 귀양 국제륙로항 도랍영 (都拉营) 역을 출발하고 있는 중국—유럽 화물렬차 . 해당 렬차는 알라산구통상구를 통해 출경한 후 벨라루씨로 향했다 . / 신화넷

신강위글자치구 알라산구 (阿拉山口) 통상구의 중국—유럽 (중앙아시아) 화물렬차 통행량이 3,000 편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. 유럽 , 중앙아시아와의 륙상 무역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난해보다 19 일 앞당겨 달성한 기록이다 .

이는 우리 나라 서부지역 물류 네트워크에서 신강 철도의 중추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. 수출기업들이 중앙아시아와 유럽 시장으로 제품을 운송하기 위해 륙상 철도 로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.

중국철도우룸치국그룹 알라산구역에 따르면 알라산구통상구는 1 일 평균 20 편 이상 , 최대 35 편의 중국—유럽 (중앙아시아) 화물렬차를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. 이와 함께 통상구의 통관 처리 능력과 처리 효률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.

중국이 최근 발표한 2 분기 화물렬차 운행 계획에 따르면 북경 , 천진 , 하북성 장가구에서 출발해 알라산구를 거쳐 유럽 (중앙아시아) 으로 향하는 화물렬차가 증편되면서 이 국경통상구를 경유하는 철도 운송망이 확대됐다 .

알라산구세관도 '조건부 반입' 조치가 적용되는 수입 곡물에 대한 신속 통관 시행 , 기업 수요에 맞춘 야간 검사 등 화물 체류 시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.

한편 알라산구통상구를 통해 운행되는 중국—유럽 (중앙아시아) 화물렬차 로선은 128 개로 독일 , 뽈스까 등 21 개국을 련결한다 . 중국—유럽 화물렬차는 해당 로선을 통해 자동차 부품 , 전자 제품 , 생활용품 등 200 종 이상의 화물을 실어 나르고 있다 .

/ 신화넷